

일상 속의 치유 : 내 작품의 지향성

Healing in Daily Life: A Theme of my works

홍푸르메(고신대 조형미술학과)

미술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

- I. 들어가는 말
- II. 소통을 통한 치유
 1. 요셉보이스
 2. 홍푸르메
- III. 일상 속의 치유 : 내 작품의 지향성
 1. 조형 : 반복과 통일성
 2. 중첩의 의미
 3. 대칭과 비대칭 : 구도의 조화
 4. 단순성의 미
 5. 성장
 6. 빛의 미학
 7. 고요함

일상 속의 치유 : 내 작품의 지향성

홍 푸르메 (고신대)

요약문

이 글은 2000년 이후로 발표된 <섭리(攝理, Providence)>, <모반(母盤, Motherly Matrix)>, <일상속의 치유(日常속의 治癒, Healing in Daily Life)>, <빛이 열려(Opening His Light)>, 2005년의 <섭섭한 치유(Healing through Sacred Belief)>, 그리고 2006년의 <에덴의 환희(Delight of Eden)>에 이르기까지의 전시를 통하여 발표된 내 작품들을 회고하면서 그 중심사상을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전시들을 통하여 나는 한가지 일관된 주제를 추구했는데 그것은 '일상의 치유'라는 모티브였다. 이런 주제는 무엇보다 기독교적 정신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리고 굳이 더 얘기하자면 이러한 작업들은 기독교적 세계관과 프래그머티즘 예술론이 정신적 배경으로 제작된 작품들이다. 프래그머티즘 예술론은 작품이 공허한 메시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용성, 유용성을 지닌다는 뜻이다. 나의 작품들은 먹의 세계를 통하여 사람들의 영혼과 정신을 복음으로 치유하려는 일관된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그런 치유의 메시지는 나의 그림에서 빛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키워드: 홍푸르메, 소통, 요셉보이스, 일상, 치유, 빛의 미학

I. 들어가는 말

오늘날 현대미술의 위상을 조망해 볼 때 소위 ‘예술의 무용성’이란 논리에 의해 미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멀어지고 있는 현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대중들이 미술세계에 가까이 다가서는 것조차 거부하는 높은 벽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점에 예술계에 속한 한 사람으로서 ‘예술이 사회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7년간의 고민 끝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술작품이 유용성을 가질 수 있음을 다시금 인식하고 이를 조심스럽게 제안하게 되었다. 이러한 예술작품의 유용성은 작품과 대중들의 연결고리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대답이 나온 이유는 본 연구자의 일련의 작품 속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예술의 유용성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를 ‘치유’에서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사례연구로 현대의 대표적인 서양화가 가운데 1인이며 치유예술가인 요셉 보이스(Joseph Beuys)의 경우를 먼저 고찰하고 이어서 동양화가인 본 연구자의 작품을 중심으로 예술의 유용성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2000년 이후로 발표한 작품과 전시들 즉 <섭리(攝理, Providence)>, <모반(母盤, Motherly Matrix)>, <일상속의 치유(日常속의 治癒, Healing in Daily Life)>, <빛이 열려(Opening His Light)>, 2005년의 <섬섬한 치유(Healing through Sacred Belief)> 그리고 2006년의 <에덴의 환희(Delight of Eden)>에 이르기까지의 전시를 통하여 ‘일상의 치유’라는 모티브를 일관되게 추구하였는데, 이러한 작업들은 기독교적 세계관과 프래그머티즘 예술론이 정신적 배경으로 제작된 작품들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예술작품이 어떻게 감상자의 일상 속에서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감상자로 하여금 ‘미적경험’을 불러일으키며, 또한 작품의 조형요소(형태, 색, 운동, 긴장, 빛)에 의해 육체적, 정신적, 영적 치유 작용이 일어나는 지를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원인 분석을 형태, 인지, 지각 심리학과 조형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그 영향들에 관하여 실험하였다.

II. 소통을 통한 치유

1. 요셉 보이스

소통을 통한 치유를 하자. 요셉보이스를 치유의 예술가 즉, 샤먼 예술가라고 부른다. 세계를 가장 깊이 걱정하는 예술가였던 그는 자신이 겪은 때를 치유가 필요한 시대라 생각하였다. 1974년 보이스는 한때 미국 인디언들이 신성한 존재로 취급했으나 백인들에 의해 살육당한 동물인 코요테 한 마리와 뉴욕의 한 화랑에서 1주일을 보냈다. 그가 코요테와의 '대화'를 통해 시도했던 것은 서로 대립되는 세계관 사이의 불일치로 말미암아 미국 사회가 겪게 될 정신적인 상처의 치유였다.



그림 1 요셉보이스, 자신의 비행기 사고 당시 목숨을 구해준 지방과 펠트 천 조각



그림 2 요셉보이스, 그랜드 피아노와 같은 모양으로 침투하기 1962

1974년 뉴욕 케네디 공항. 모자를 눌러쓴 한 사나이가 막 도착한 비행기 트랩에서 황급히 내려 미리 대기한 구급차로 옮겨 댔다. 그는 무거운 침묵을 지킨 채 구급차가 달리는 동안 한 번도 창문 밖으로 시선을 던지지 않았다. 이윽고 구급차는 르네블록 화랑에 도착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사람들이 차 주위로 몰려들었다. 사나이는 모자를 손으로 누른 채 재빨리 화랑으로 뛰어 들어갔다. 화랑 안에는 북미에서 야생하는 코요테 한 마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나이는 천으로 온몸을 가리고 코요테에게 다가갔다. 성질이 날카로운 코요테는 조심스럽게 사나이 주변을 빙빙 돌았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지났다. 사나이는 코요테에게 아무 말도 걸지 않았다. 사나흘이 지나자 코요테는 사나이에게 호감을 보였다. 사나이는 코요테를 품에 안았다. 그렇게 또 한 주일이 지났다. 사나이는 코요테에게 키스를 해주고는 다시 케네디 공항으로 달려갔다. 짹짹 비행기에 오른 그는 "나는 코요테에만 전념했다."고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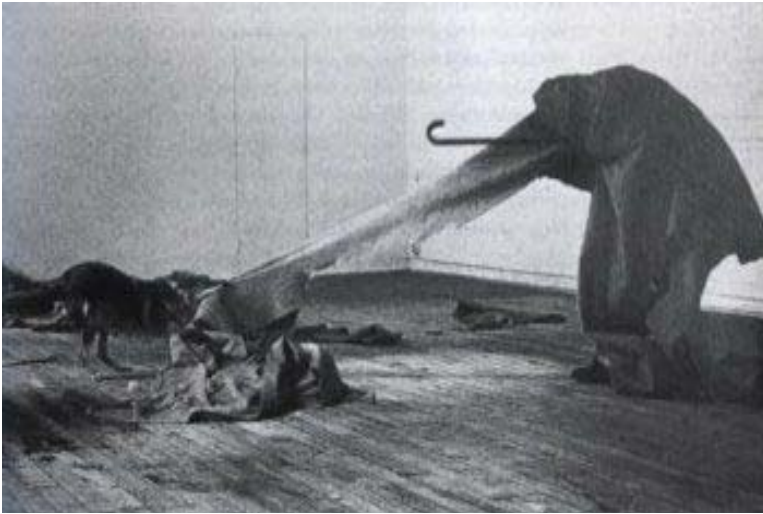


그림 3 요셉보이스, 코요테 : 나는 미국을 좋아하고 미국도 나를 좋아한다. 1974

개념주의 예술가 요셉보이스 역시 현대인을 병든 것으로 보고, 자신을 주술로써 그 질병을 치유하는 무당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일종의 처방전으로서 기름(지방) 덩어리와 펠트 천을 제안하는 데, 그것은 기름 덩어리가 부패를 방지하는 한편 펠트 천이 불필요한 온도의 방출을 막아 필요로 하는 체온을 유지시켜 준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렇듯 기름 덩어리와 펠트 천은 물리적인 치유를 위한 실질적인 효과와 함께, 이보다는 정작 정신적인 부패와 인간성

(자연성 혹은 동물적 본성) 상실을 방지하는 주술적인 효과를 의미한다. 이는 그 자체로 반문명적인 혹은 문명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인은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자기와 각별한 의미로 연결된 사사로운 물건에 의해서도 위안을 받는다. 이때의 물건 역시 개인을 치유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물건 이상의 일종의 주물이며 약이다. 각종 액세서리와 미니어처에 대한 과도한 수집열(수집광)에서 물건의 물리적인 기능은 심미적인 기능(관상을 통한 심리적 위안)보다 결코 우선적이지 않다. 이때의 액세서리와 미니어처 역시 주물이며 약이다. 예술가들은 이런 물신주의의 풍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편, 그 물건이 주는 위안 속에서 나는, 우리는, 현대인의 삶은 과연 행복한가라고 묻는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술을 통한 위안이 영원하며 가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명상미술, 나를 찾아서-고 충 환/미술평론가

2. 흥푸르메

치유를 모티브로 작업을 하게 된 동기는 이 시대가 치유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대이며, 동시에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단절에서 오는 외로움과 혼자 남게 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고독을 경험을 하면서 부터이다. 인간의 고통의 요소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것과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고통에 대해 통합적 치유를 모색을 하는 가운데 시지각을 통한 치유가 비물질적인 요소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치유방법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본 연구자는 아동기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정신적 아픔으로 긴 투병생활 하였으며, 그 후 육체적 고통을 겪으면서 치유에 대한 절실한 요구가 내면으로 부터 자연스럽게 발현되었다. 본 연구자의 작품을 시기적으로 분류하는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아래의 <그림 4>에서 부터 <그림 9>까지의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확연하게 드러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감상자들의 평가에서도 이와 유사한 답변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림 4 홍푸르메, 파초, 70*90, 한지에 혼합재료, 1995



그림 5 홍푸르메, 떡의 변주, 53*73, 천에 먹, 1996



그림 6 홍푸르메, 희상, 130*162 화선지에 먹, 1997



그림 7 홍푸르메, *섬리*, 53*73, 화선지에 먹, 2003



그림 8 홍푸르메, *자연의 소리*, 130*162 화선지에 먹, 1997



그림 9 홍푸르메, *빛이 열려(Opening His light)*, 화선지에 먹, 2006

본 연구자는 예술작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나 관조하는 가운데 ‘미적경험’을 체험하였고, 이후 육체적, 정신적 치유가 점진적으로 일어났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1996년부터 2000년 작품까지는 본 연구자의 본인의 존재를 중심으로 한 공간이었다면, 2000년 이후부터 변하기 시작하여 2006년에는 본격적으로 작품 속에 타인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며 감상자 중심의 작품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본 연구자도 느낄 수 있었다. 이는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하게 되면서 감상자의 입장에 서는 해체주의 경향으로의 변화된 것이다. 요셉보이스는 예술가가 사회운동가의 역할을 하며 사회에 대한 이슈와 계몽을 위한 개념미술의 과정에서 치유에 대한 모티브가 발생되었지만, 본 연구자는 시지각을 통해 뇌수 국부의 자극들이 서로에게 역동적으로 작용된다는 베르타이머의 이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시각적인 힘은 지각, 감각 또는 사고하는 어느 것만큼이나 실제성을 갖는다.¹⁾ 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이다. 정신적, 육체적 병이 발생되어 고통의 경험을 예술을 통해 안정과 위안을 얻어 치유의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미적치유를 이루 낸 것이 요셉보이스와의 차이점이다. 또 다른 점은 요셉보이스의 작품 세계를 보면 급진적이고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팝아트, 키치미술, 행위미술, 전위미술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북미미술은 이러한 충격요법이 필요 불가하였으리라 여겨진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요법은 시간이 지남에

1) 루돌프 아른하임 저, 김춘일 역, *Visual perception*, p24, 미진사 2003, 서울

따라 더 강한 면역이 생기고, 이는 곧 더 강한 처방전을 필요로 하게 되는 점이 문제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동양인인 본 연구자는 감상자와 일시적인 접촉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항상 가까이 함께 있으며 인간의 시지각을 통해 심적 안정감을 삶 속에 스며들게 하여 치유를 제시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있다.

세 번째로는 요셉보이스 개념에 대한 공허성에 대한 문제점이다. 이는 유한한 인간의 한계성에 오는 근원적 공허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2006년 육체적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대에서 느끼는 감정은 치유의 개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변인의 손길, 관심, 희망을 주는 주님의 사랑만이 수술대에 누워 있는 환자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졌다. 개념 보다는 '심상이 더 유용하다'라는 생각이다. <그림 2>에서 나타난 피아노와 <그림 3>에서 나타난 코요테에 대해 관심과 배려를 할 정도라면 정상적인 건강한 상태의 사람들이다. 본 연구자는 병고에 시달리고 있는 아니면 자신조차 알지 못하는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작품은 자기식대로의 사랑 즉 '개념적 사랑' 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의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의식, 무의식 상태에서도 나란 존재가 병들어 있을 땐 타인을 배려보다는 내가 살아야 하다는 강한 집착에 빠져들게 되기 때문에 주님의 절대적 사랑과 예술치유가 없다면 완치가 불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 치유의 필요성은 근원적인 문제 해결인 예술치유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본 연구자는 치유작품의 주요요소를 언급하고자 한다. 언어, 장소 조형요소(형태, 색, 운동, 긴장, 빛)에 의해 육체적, 정신적, 영적 치유 작용에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었다. 조형요소에 대한 내용은 3장 일상 속의 치유에서 언급하기로 하고 언어, 장소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언어

'Opening of His light'라는 제목에 배어있듯이, 위에서 떨어지는 빛줄기의 광휘는 존재자의 비추임이며 드러냄이다. 절대자의 시니피에(signifié)는 상처받고 고통에 괴로워하는 세계 내 우리를 깊은 내면까지 스며들어 통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는 미적 공감(aesthetic sympathy)이다.²⁾ 본 연구자는 특별히 빛의 아이콘을 정신적 긴장에 대한 이완작용을 돕는 아이콘이라고 생각하며 빛에 대해 감정이입 하였다. 필자가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겪으며 지금은 치유가 필요한 시대라 생각하고 있었다. 본 연구자가

2) U. 에코 저, 김광현 역, 기호와 현대예술 열린 책들, 1998

빛과의 ‘소통’을 통해 시도하고 있는 것은 서로 대립되는 세계관 사이의 불일치로 말미암아 현대 사회가 겪고 있는 정신적 상처의 치유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술을 통한 위안이 영원하며 가치 있는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품제목에서 드러내는 모반, 빛이라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시각자로 하여금 영적 플라시보 효과³⁾를 보여준다.

장소

장소의 중요성에 언급하기 전에 동양미술에 여러 영역에 걸쳐 애호되고 있는 ‘용’의 설치장소에 있어서 그 의미와 상징성을 고찰하면서 본인 작품의 설치 장소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용은 궁궐의 지붕 위나 임금이 임하는 곳, 사찰의 법당이나 처마, 승려의 부도나 사대부의 묘비 등에 장식되듯이 장소에 대한 상징성은 외형의 배후에 숨어 있는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게 된다.⁴⁾ 서양미술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미술관에 있으며 예술작품이 되지만 슈퍼에 있으면 세탁용 세제가 되는 앤디워홀의 ‘브릴로 박스(1968)’ 작품처럼 예술작품의 장소에 따라 그 존재가 다르게 나타나듯이 나의 작품은 갤러리나 미술관 보다는 치유가 필요한 곳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III. 일상 속의 치유 : 내 작품의 지향성

1. 조형 : 반복과 통일성

치유가 되는 작품은 조형성이 우수하다. 즉 조형적 뼈대를 구축한 형태 구조가 우수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조형적 뼈대란 형태의 ‘구도’나 ‘구조’를 말한다. 구조는 조형 요소들이 모여서 만든 질서 체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가 눈에 보이는 형태 요소들보다 우선시되면 소위 추상 형태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치유가 되는 작품은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형태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형태를 질서 짓는 구도나 구조가 중요하다. 그러한 질서의 구도나 구조는 ‘반복’을 통해서 얻어 질 수 있는데 이는 ‘통일감’을 주기 때문이다. 즉, 각각 다른 형태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는 방법이다.

3) 플라시보 효과란

4) 허균, 전통미술의 소재와 상징, 교보문고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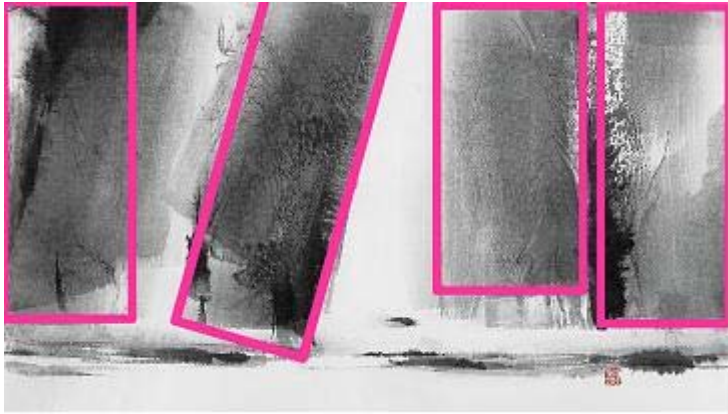


그림 10 '면(面)'의 반복을 통해 통일감 이룸

2. 중첩의 의미

중첩을 이용해 통일감과 견고함을 나타냈다. 중첩으로 단축과 함께 한 대상의 통일감, 유기적인 성격, 견고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거나 더 강조된다. 이때 요구되는 시각 조건은 투영의 효과에 의해서 서로 연결한 단위들의 서로 구분되고 동시에 다른 평면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중첩은 보다 통일된 패턴 안에서 집중됨으로써 그 형태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든다. 위 작품은 자연을 닮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닮은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닮음이며, 이러한 추상적 구상 형태가 감상자로 하여금 평온한 심적 상태를 불러일으킨다. 이 부분에 콰브리치의 말을 인용하면 “어떤 대상이 우리와 생물학적 관련성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그 대상을 인식하는데 더 잘 조율되고, 그래서 그것과 우리와의 형태적 부합성의 표준도 따라서 관대해진다.”고 말하였다. 만약에 불균형적인 반복을 보고 있으면, 일종의 자의적인 추론에 의해 자신의 신체 내에서 불균형의 감정을 느낀다고 한다. 그러므로 균형 잡힌 구성이 필요하게 된다. 우주는 평행 상태를 지향하려 하며, 평행 속에서는 실존하는 분포의 모든 비대칭이 제거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물리적인 활동은 ‘균형을 위한 추구’라고 규정될 수 있다.⁵⁾ 결론적으로 반복을 통한 통일을 이루어 감상자로 하여금 균형 잡힌 자아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5) 최경원 저,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Good Design, 길벗, 2004

3. 대칭과 비대칭 : 구도의 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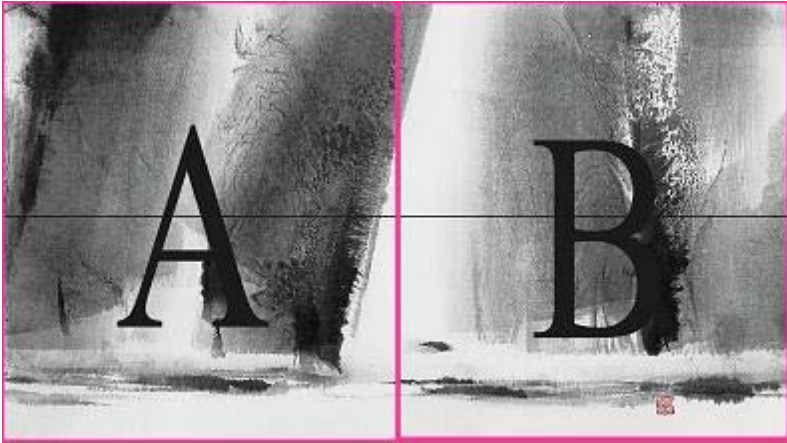


그림 11 대칭구조

치유의 작품의 두 번째 요인은 ‘대칭’ 구조를 통한 ‘안정감’이다. 대칭은 형태요소들을 하나로 구조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러한 형태는 안정감을 주는데 뛰어난 방법이다. 하지만 대칭이 지나치게 되면 엄숙하면서도 권위 있게 보이게 된다. 이집트 미술을 보게 되면 이러한 기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위 작품의 느낌은 어떠한가? 엄숙하거나 권위 있게 보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눈은 시각적으로 안정감도 원하지만, 그에 못잡게 변화에서 오는 재미도 원하기 때문에 예상에서 벗어나고 균형이 깨지는 데서 오는 조형적 긴장감을 기대하고 있다. 감상자들은 이를 통해 심미적 쾌감을 맛보고 싶어 한다. 그러나 형태를 안정시키면서 변화를 준다는 것은 분명한 모순이다. 조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바로 이 변화와 통일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는가이다. 또한 그 변화도 정서적 안정을 이루면서 완만한 변화를 이루어야 하며 어느 한 쪽에도 기울어지지 않는 균형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문제의 해법을 이 작품에서 “비대칭구조”로 해결하였다.

다음으로 비대칭 구조이면서 안정적인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비대칭이면서도 가장 안정된 구조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정물화를 그릴 때 자주 사용하는 삼각 구도와 포인트의 대입이 있다. 이 작품에서는 좌우에 나무형태의 두 그루로 비대칭 구조에 포인트를 주었고 가운데 바위 같은 작은 점을 찍어 무게 중심을 갖추었다. 이 바위의 점이 절대 포인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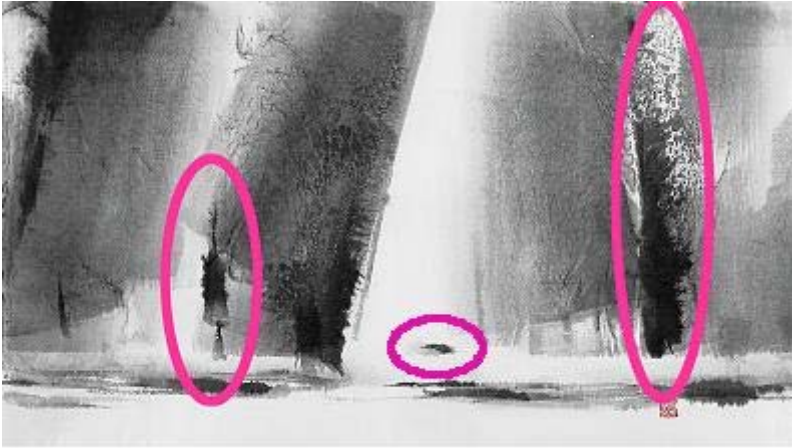


그림 12 비대칭 구조와 중앙 포인트

예술작품에서 비대칭을 추구하다가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지면 변화와 통일성을 모두 잃기 때문에 위대한 화가들은 점 하나를 찍기 위해서는 수십 년의 수련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종이에 수묵이라는 매체를 가지고 작업하는 경우 미리 찍어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수천 아니 수만 번을 찍다 보면 생득적으로 전체 구도의 조화를 끊임없이 상상하며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절대 절명의 자리에 찍게 되는 것이다.

아래 작품<그림 14>에서는 단조롭지 않게 하기 위해 ‘실루엣(색을 제거한 회색음영처리)’효과인 수묵을 이용하고, 발묵(먹에 물을 혼합해 번지는 효과)을 이용해 ‘질감’을 부드럽게 해주어 안정감과 변화를 함께 추구한 작품이다. 이럴 때 주의 점은 조형적 안정감을 해치지 않는 정도에서 해주는 것이 좋다. 사람의 눈은 안정된 것보다는 불안정한 것에 강하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말하자면 시각적 인상이 강한 형태들은 대부분 이러한 시각적 불안함을 통해 발산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림의 구도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불안한 역삼각형 구도를 구성하게 되면 이러한 발산이 일어난다.



그림 13 실루엣 효과 사진



그림 14 수목의 실루엣 효과
 형태의 인상을 강하게, 표현을 극대화하고 싶을 때는 의도적으로 조형을 불안정한 구도나 구조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본 연구자의 작품은 이러한 점을 배제하며 작업하여 수평과 수직구도로 평온한 기운이 감돌게 하였다.



그림 15 수직, 수평 그리고 대각선 구도

수직과 수평구도만으로는 단조로움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흐르는 구조를 가미하여 역동성이 일어나게 하였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향하는 방향성은 반대로 그린 경우와 비교하면 전자는 상승의 기운이 일어나고, 후자의 경우는 하강의 기운이 나타난다. 이러한 부분적인 형태의 이미지를 전체 구조의 이미지에 맞게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조형적으로 인상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 정형적이지 않은 형태들의 어울림에는 과격적인 아름다움과 힘이 느껴진다.

우리 뇌수에는 고정된 방향 의식이 있는데, 수직적 방향이 그 지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6~11세의 아동들은 고정된 방향 의식이 강하지 않다가 11세 이후 현실 세계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해질 때 고정된 방향 의식이 생겨난다.⁶⁾ 이러한 지배적인 힘을 사격(대각)구도와 어울리게 하여 조화를 이루었다.

4. 단순성의 미

단순성은 관찰자에게 주어지는 일정한 현상의 효과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 단순성의 의미는 그의 주관적인 반응에 국한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스피노자(Spinoza)는 단순성을 질서와 동일하다고 언급했는데 그에 따르면 쉽게 기억 되게끔 배치되어 있을 때 그것들이 질서가 잘 이어져 있다고 말한다.⁷⁾ 그 반대의 경우일 때, 우리는 질서가 흐트러졌거나 혼돈되어 있다고 말한다.

6) 루돌프 아르하임 저, 김춘일 역, Visual perception, p93, 미진사 2003, 서울

7) 루돌프 아르하임 저, 김춘일 역, Visual perception, p59, 미진사 2003, 서울



그림 16 물상의 단순화

<그림 16> 작품은 단순성을 통하여 긴장감을 해소하고 평화의 이미지를 연출하려고 의도하였다. 본 연구자의 작품은 단순성을 세 가지 조건을 염두에 두고 작업하였는데 첫 번째는 대상이 주는 시각적 자극을 단순화시켰으며, 두 번째는 의미를 단순하게 하여 감상자로 하여금 복잡한 심상을 떠올리게 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작품을 보는 순간 어떤 존재, 의도, 인상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성’의 관조를 일으키는 지적 단순성을 갖도록 의도 하였다.

특히 물리적 단순성을 얻기 위해 ‘균형’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이는 균형을 통해서 단순성을 얻기 위해서였다. 즉 ‘균형’은 애매성과 비통일성을 배제함으로써 작품에서 단순성을 증진한 것이다. 사람은 정형 및 대칭적 형상에서 어떤 완성된 이미지와 평화의 이미지를 발견하곤 하기 때문이다.

뉴턴(Isaac Newton)의 말로는 자연은 “불필요한 것을 행하지 않으며 소량으로 족할 때는 그 이상의 양은 쓸데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연은 단순에 만족하며 필요 이상의 과잉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의 작품은 모든 것들이 서로 닮아 보인다. 하늘, 물, 나무 등이 하나로, 또 동일한 물체로 만들어지거나 한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이것은 어떤 것의 본연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의 힘에 모든 것을 예측되게 함으로써 재창조를 한 것이다.



그림 17 전체구도를 위로 이동 후



그림 18 전체구도를 아래로 이동 후



그림 19 중앙 오른쪽 벌려 이동



그림 20 정상적인 작품

심리적 균형과 물리적 균형 -그림에서의 중심은 대체로 프레임의 중심과 일치한다. 하지만 위 그림에서는 아래쪽이 균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두 작품은 전체 구조에 더 잘 들어맞는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해 위치와 형태를 바꾸려는 성향을 보인다.

5. 성장(growth)

표현의 본연은 아주 단순하게 묘사되는 그림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회화 표현의 형태는 그 자체의 일정한 규칙들을 따라 성장한다. 즉, 점점 분화되어 가는 과정을 거쳐 성장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표현의 과정이지만 본인은 이러한 것을 배재하였다. 복잡한 실재의 대상을 전혀 다른 단순한 기하학적 패턴과 동일시되게끔 유도하였다. 본 연구자의 작품은 ‘본 것’ 중에서 가장 단순하고 대표적인 특징을 선택하고 재구성한 것이므로 흡사 어린이의 그림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선(線)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어린아이들의 그림은 방향성이 다양하게 분화되기 전까지 방향은 ‘직선’에 의해 최단순의 구조로서 표현하며 구조적으로 매우 단순한 형태, 즉 직각 관계로서 묘사된 점을 들 수 있다. 이점부분이 본 연구자에게 관심을 갖게 하였고,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본 연구자의 작품을 성장을 하지 않게 하면서도 완성에 다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직선’을 통한 작품이 최종 결과였다. <그림 20>에서 볼 수 있듯이 작품 전체적인 패턴은 직선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원형으로의 회귀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 빛의 미학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분을 위해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은 때로는 불꽃과 구름으로 때로는 천둥 또는 연기로 그리고 때로는 밝은 빛으로 나타난다(출 24:17 40:34, 시 29:1, 사 6:3-4, 60:1, 눅 2:9). 세상의 빛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성을 분명히 반영하고 있으며,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둠 속에서 보는 것처럼 불명확하게 느끼던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게 되기를 작품을 통해 전하고자 하였다.⁸⁾

빛은 우리에게 통일감과 질서감을 전해 준다. 과거의 미술에서 빛은 그림에 통일감을 주고 물질성을 강조하는 데 쓰인 반면, 현대 미술에서는 빛이 인간의 정신적, 심리적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 긴장과 갈등을 표현하는 요소로서 많이 쓰인다. 본 연구자는 빛을 분별 있게 배치하여 복잡한 대상의 형상에 통일감과 질서감을 얻을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중앙의 하얀 여백은 주변의 어둡게 하여 밝은 면이 크게 보이는 효과인 광삼(irradiation)효과를 나타내는데 상대적으로 크게 보이게끔 하여 깊은

⁸⁾ Rick Warren 고성삼 역 “The Purpose driven” 디모테 2006

원근감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감상자들은 시원한 기운을 얻게 되도록 의도 하였다. 자연현상으로 드러나는 빛으로의 조형의 아닌 영적 상징으로서의 빛. 이 빛은 생명, 성장, 희망, 살롱 그리고 원형으로의 영적 회복을 위한 또 하나의 아이콘이다. 빛에 대한 미학적 해석과 종교적 해석의 구체적 언급은 다음 기회에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기로 하고 현재 본 연구자의 작품에 내재해 있는 빛으로의 조형표현의 목적과 이에 따른 조형적 상징에 대한 언급만 하기로 하였다.

7. 요약

우리는 고요를 즐기는가. 고요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지니고 있는가. 스스로 고요함을 찾은 적은 있는가. 고요하면 우선 쓸쓸함이나 적막함을 연상케 될지는 모르나 그보다 한적함이 주는 여유 등 보다 긍정적인 의미도 있다.⁹⁾ 현대 문명의 소음으로 잃는 것이 많은데 그중에서 자신과의 그리고 주님과 진지한 대화를 잃어버리곤 한다.

우리 전통 미술의 특징주의 하나로 '고요의 아름다움'도 열거된다. 번잡하지 않고 요란 시끌벅적하지 않고 차분하고 정갈하며 은은한 분위기 등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지닌 시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전 예술분야에 두루 간직된다. 이러한 한국적 정감을 본 연구자의 작품 속에 담아내어 감상자로 하여금 혼란한 정신 상태를 명상의 상태로 전이(轉移)되게 하여 정적인 심적 상태를 유지되도록 의도하였다.

IV. 맺음말

미술이란 세상에서 가장 유용한 것이다. 따라서 미술에 가까이 다가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벽을 쳐서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원시 미술부터 근대미술까지 미술의 유용성이 존재되어 왔지만, 근대이후로는 예술가의 의도와 심리적 감정표출에 의해 작업 위주로 예술의 고립을 초래해왔다. 이에 프래그머티즘의 예술사상을 배경으로 고찰해 볼 때 예술의 유용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유용성이 무엇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온 본 연구자는 작품세계를 통해 '일상의 치유'를 예술을 통한 소통, 소통을 통한 치유의 방법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즉, 수묵의

9) 이원복 '나는 공부하러 박물관 간다' 효형출판 1997

역동성으로 시작하여 치유적 상징성으로 작품을 표현한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세계인 자연을 본향으로 삼은 것이다. 이는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짐으로 회복하려는 의도이며, '스며들어 통한다.' 라는 삼투(滲透)의 언어의 시니피에를 통해서 치유의 의도성을 담은 것이다. 표현주의에서부터 시작되어 다원주의인 포스트모더니즘과 해체주의 시대까지 미적소통을 학문으로 발전시켜낸 치유미술은 상상력과 재창조의 과정을 통해 발원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미술사를 보면 예술작품들은 종교개혁의 성상파괴운동을 기점으로 기독교와의 결별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예술이 그 유용성과 탁월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루 속히 기독교와 해후하여 세상의 중심예술로 일어나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신앙으로 세속 문화를 점령해 가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것은 예술가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교계(敎界)의 적극적인 후원과 관심 그리고 동참을 통해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감상자, 예술가 그리고 영적지도자의 소통이 선행될 때 비로써 기독교미술이 세상과의 소통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이를 통해 상처 난感性, 이성, 그리고 영성에 치유의 역할을 해낼 것이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 루돌프 아르하임(2003), 『Visual perception』, 미진사
이원복(1997), 『나는 공부하러 박물관 간다』, 효형출판
최경원(2004),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Good Design, 길벗
허균(1994), 『전통미술의 소재와 상징』, 교보문고
U. 에코 저, 김광현 역(1998), 『기호와 현대예술』 열린 책들
Rick Warren(2006), 『The Purpose driven』 디모데
존 칼빈, 『기독교강요 上,中,下』, 김종흡 외 공역, 생명의 말씀사, 1988.

홍푸르메 홍푸르메교수는 1989년 국립 충남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를 졸업, 1994 국립 대만사범대학 미술계 동양화과 대학원 수료하고 현재 고신대학교 조형미술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미술협회, 동방 예술연구회 등에 소속되어있고, 여러번의 한국미술대전특선, 대한민국 진경산수전 대상(1995), 겸재미술상 청년작가상(2001) 수상하다. 제네바, 뉴욕, 파리 등 다양한 국제아트페어에 참여하다.